

◆ 9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 : 9. 17.(수) 12:00부터 보도

보도자료 2025. 9. 17.(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 02-6919-3901, 3909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낙원/정책연구팀장: 황정원 / 담당: 오예진 선임연구원

**대교협, ‘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정책 연구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 사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학업 부담,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조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 2024년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에서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표본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개입(상담 및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초·중등학생의 경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학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에 대교협이 추진 중인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하여 대학사회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대학의 대학생, 교수,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및 정신건강 지원현황 파악
 -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안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향후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